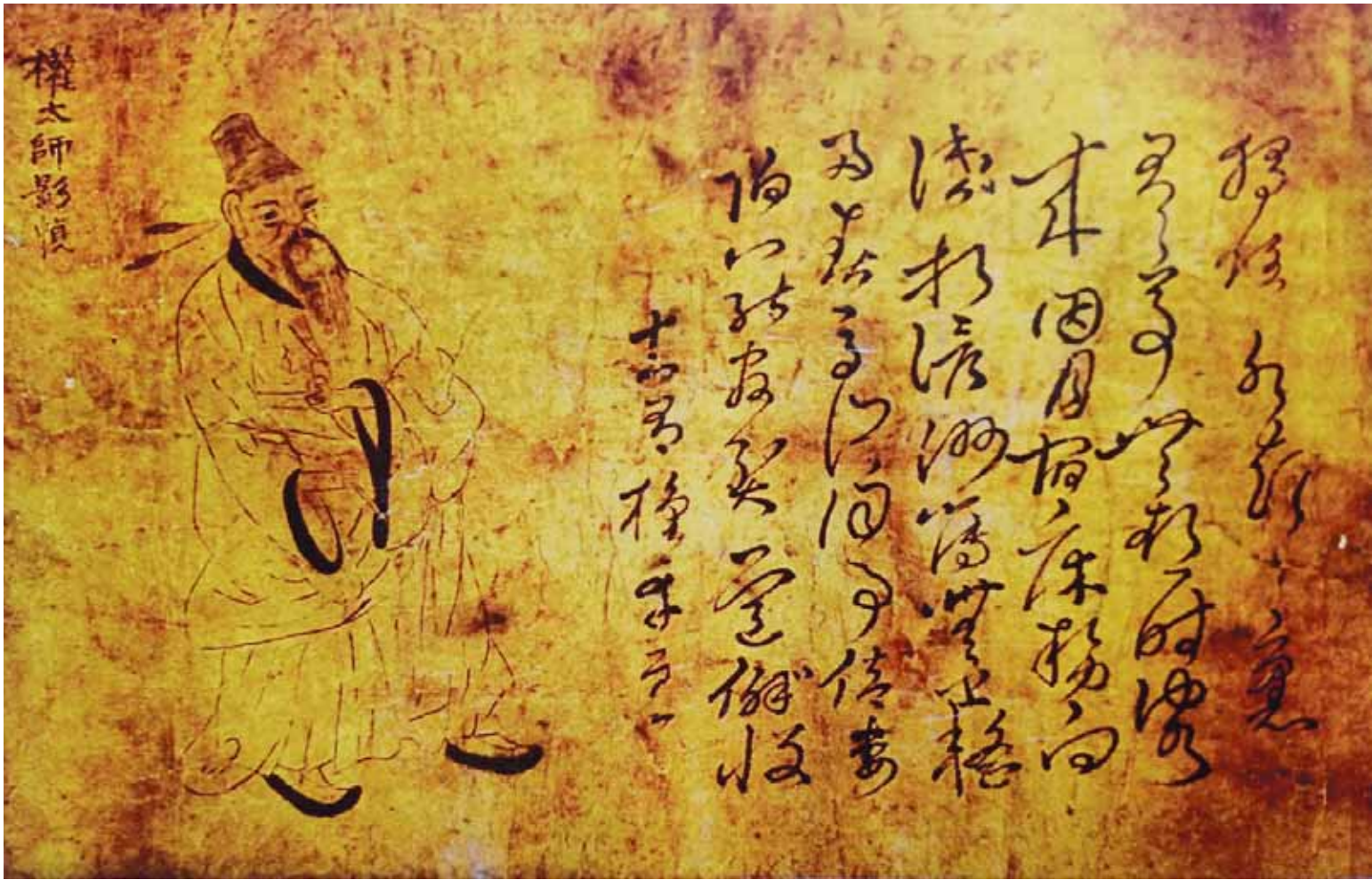


시조 태사공의 필적筆跡과 화상畫像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께서는 문무(文武)를 쌍전(雙全)하신 겹사(傑士)이시였다. 무담(武談)은 여러 정사(正史)와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 선생이 쓰신 성화보(成化譜) 서문(序文)에서 밝힌 안동권씨득성유래(安東權氏得姓由來)에서 심본 입증(立證)되었고 문목(文墨)에 있어서도 여기에 실은 오언절시(五言絶詩) 양수(兩首)를 음미(吟味)해보면 이룬(異論)의 여지(餘地)가 없다.

이 시(詩) 가운데 담긴 여러 정황(情況)은 당시의 대요(大要)를 짐작할 수 있으며 필치(筆致)는 거의 신�필(神筆)에 가까운 초서(草書)로서 석봉(石峯) 한호(韓濩)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양명필가(兩名筆家)보다 특출(特出)한 기상(氣像)이 엿보인다. 필자가 이 글을 접한 것은 근 오십년전(五十年前)이었는데 안동권씨 서울화수회가 종로구(鐘路區) 혜화동(惠化洞)에 자리 잡고 있을 때였다.

당시 어느 분이 태사공(太師公)의 화상(畫像)이 그려진 한시(漢詩) 유고(遺稿)를 갖고 와서 50만원을 호가하였으나 모두들 눈여겨 살펴보

지도 않고 지나쳐 버렸는데 필자 역시 나이 너무 젊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른들의 동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이 시문(詩文)이 영가언행록(永嘉言行錄)에 수록(收錄)되었으나 원문(原文)이 극초(極草)로서 너무 어려워 해석(解釋) 없이 실은 상태였다. 그러나 필자(筆者)에겐 깊은 감회를 주었으니 이와 같이 천하에 전무후무(前無後無)한 보물(寶物)을 올바르게 풀이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되겠기에 역시(譯詩)에 집착한 지 10여 년간 당시의 석학(碩學) 계산(桂山) 정원태(鄭元泰), 관재(寬齋) 권숙(權誦), 연민(淵民) 이가원(李家遠), 용전(龍田) 김철희(金喆熙) 선생 등에게 여러 차례 자문을 받으면서 공을 드리고 공리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는데 내 나이 86세(이 글을 작성할 당시)이니 나머지 눈을 감으면 언제 누가 밝혀주겠는가?

조상의 빛나는 글과 공훈이 있는데도 세상에 들어내 주지 않으면 어질지도 못하고 효행도 아니다(有文不闡不仁不孝 유문불천불인불효)라

고 했는데 하물며 시조께서는 한 시대(時代)의 영웅겹사(英雄傑士)이시라.

■ 시(詩)와 화상(畫像) 설명

獨隱水聲裡(독은수성리)
홀로 물소리 속에 은거하고 있으니
昌亨無熱時(창정무열시)
창정에서는 더운 때를 모를러라
客來因月宿(객내인월숙)
빈객이 찾아오면 달 밝은 정자에서 쉬며
床勢向低持(상세향저지)
침상은 높은 곳에 마련하였지

* 오언절시(五言絶詩)로서 평성지운(平聲支韻)이다.
* 극초(極草)로 활달하게 쓰였는데 만년(晩年)의 한가(閑暇)하심이 엿보인다.

瀛洲護無出(영주박무출)
영주에 흥년이 들어 소출이 없으므로
整兩春馬促(정량춘마촉)

수레를 정비하여 봄 말을 재촉했네
田事靑裴伯(전사청누백)
농사일은 누백에게 모두 맡기고
龍官貧還復(파관빈환복)
관직에서 물러나니 청빈으로 돌아섰네

* 오언절시(五言絶詩)로서 측성옥운(仄聲沃韻)으로 옥운(屋韻)과 통운(通韻)하였다.

나라에 흉년(凶年)이 들어 소출(所出)이 없으므로 봄에 말을 재촉하여 어려움을 돌보시고 휴퇴(休退)하시고는 청한(淸寒)함이 엿보인다.

절시(絶詩) 두 수(首)를 연달아 쓰시고 끝에 고창(古昌) 권행(權幸) 서(署)라고 기록하였는데 서(署)자는 서(書)자와 같이 본인을 표시한 서명(署名)이다.

첫 번째 시(詩)는 한가한 가운데 자유분방하시고 두 번째 시(詩)는 재직 시에 춘궁기를 맞아 기민(飢民)을 위해 진휼(賑恤)하신 광경과 청빈(淸貧)하게 지내심을 잘 표현하였다.

이 작품이 친필(親筆)이라고 확신(確信)함은 만일 대필이라고 가정한다면 끝 구절의 파관빈환복(罷官貧還復)의 복(復) 자 앞에 지운 글자는 그냥 두지 않고 깨끗하게 고쳐 놓았을 것이나 공(公)의 친필(親筆)이므로 대법하게 잘못된 글자를 그냥 지우고 말았으며 성명 또한 극초(極草)로 쓰셨으니 만일 대필(代筆)이라면 감히 그렇게 쓰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유품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 600여 년 전의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 선생의 영정(影幀)으로 되어 있으나 본 품은 이보다 400년 이상 더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지질(紙質)은 전근대(前近代)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 한지(漢紙)로 천여 년 전의 신라(新羅) 때의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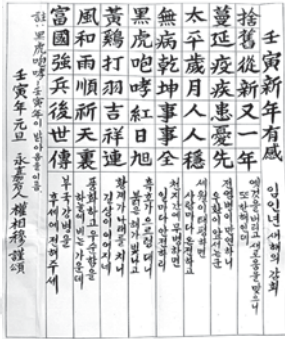
주(註):창정(昌亭) : 정자(亭子)의 이름이니 태사공(太師公)께서 애용하시던 곳으로서 산수(山水)의 절경을 겸한 곳인 듯하나 지금 어느 곳인지 알 길이 없다.

영주(瀛洲) : 해동(海東)을 달리 이르는 말이니 우리나라의 대명사이다.

누백(婁伯) : 머슴(고용인)의 대명사로서 인명(人名)으로 등장된 바도 있으나 여기의 누백과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해제(解題), 복야공파, 34세 권홍섭(權洪燮) 고문

壬寅新年有感(임인신년유감)



捨舊從新又一年(사구종신유일년)
옛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맞으니 또 한 해인데

蔓延疫疾患憂先(만연역질환우선)
전염병이 만연하니 우환이 앞서는군

太平歲月人人穩(태평세월인인온)
세월이 태평하면 사람마다 온전하고

無病乾坤事事全(무병건곤사사전)
천지간에 무병하면 일마다 안정하리

黑虎咆哮紅日旭(흑호포효홍일옥)
흑호가 으르렁대니 붉은 해가 빛나고

黃鸝打羽吉祥連(황계타우길상연)
황계가 나라를 치니 길상이 이어지네

風和雨順祈天襄(풍화우순기천리)
풍화하고 우순함을 하늘에 비는 가운데

富國強兵後世傳(부국강병후세전)
부국강병을 후세에 전해주세

주: 黑虎咆哮(흑호포효)는 임인년이 밝아옴을 이룸
임인년壬寅年 원단元旦 영가후인永嘉後人 권상목權相穆 근송謹頌

2月 찬조금 및 임원 회비 납부 내역

〈찬조금〉

권동환(미국) 200,033

부 회 장

권용일(서울구로) 1,000,000

이 사

권민호(산청) 300,000

권순길(서울송파) 300,000

총 무 위 원

권정환(상주) 200,000

총 : 2,000,033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종회

2022년 始祖 太師公 春享祭 案内

2022년도(權紀 1093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춘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일 시 : 2022년 4월 6일(수), 오전 10시
- ♣ 장 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일원)
- 연락처 : 서울 02-2695-2483~4 / 안동 054-854-2256

※ 이번 춘향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위원회 중심으로 간소하게 봉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례위원과 헌관은 반드시 참제하여 주시고, 족친 여러분께서는 상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족친 여러분께서는 4월 6일(수) 10시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하여 1분간 묵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향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종중이나 단체의 제수성금은 향사 전용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301-0268-6817-11, 예금주: 안동권씨대종회)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해옥